

지역 소식통

완주군, 모기유충 방역 총력

완주군이 일본뇌염, 뎅기열, 말라리아 등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모기 유충사식지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해빙기는 월동 모기의 저항력이 떨어지는 시기로 이 시점에 모기유충구제를 하면 여름철 모기 발생 감소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모기 유충 1마리 구제를 통해 성충 500마리를 박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모기유충구제활동은 정화조, 하수구, 하천변, 웅덩이 등 주요 유충사식에 수중에서 녹는 필름에 포장된 유충구제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오는 4월까지 진행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산업안전정책 설명회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산업안전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전현철), 안전보건공단(전북서부지사)과 공동으로 시청 대강당에서 산업안전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김제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내용을 설명했으며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 안전수준을 개선토록 안내했다. 이날, 시와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시청 사거리에서 산업안전대진단 확산 캠페인도 실시했다.

이번 산업안전대진단 확산 캠페인은 안전의식·문화 확산과 자기규율예방체계의 확립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2024 산업안전대진단 중대재해 예방, 대진단으로 시작하세요!' 라는 안전슬로건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일자리 지원 정책 발굴 시동

올해 지역일자리 공시, 138개 사업 1100여억원 투입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효율적이고 폭넓은 일자리 지원정책 발굴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지난 20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일자리정책 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자리정책 주요성과 및 2024년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김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를 근거로 보다 효율적이고 폭넓은 일자리 지원정책 발굴을 위해 새로 구성됐으며, 이찬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서장 및 시의원, 일자리 관련 전문가, 소상공인협회장, 순동산업단지협

회장, 스마스팜 입주기업 근로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지난 2023년 일자리정책 성과 및 2024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안) 보고를 통해 시가 나아가야 할 일자리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2023년 성과로 시는 전체 고용률 67.9%로 전북평균 대비 3.6%p 높은 수준을 유지(통계청,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하고, 전국 지자체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전북도 시군 일자리정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

왔다.

올해에는 '지평선(지역특화 평생일자리로 지역소멸위기 선제대응)'이라는 민선8기 일자리 비전 아래, 일자리 목표를 고용률(15~64세) 71.5%, 취업자 수 4만8,900명으로 잡고, '더 나은! 더 많은! 내 일(my job) 더 행복한 도시, 김제' 실현이라는 전략 달성을 위해 1,100여억원을 투입해 2만4,600여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힘쓰는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정책은 5가지 핵심전략과 138개 세부실천 과제로 구성해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동력기반 구축, △지역특화 첨단농업 고도화로 구부가가치 실현, △청년·창업 진화생태 조성으로 지방소멸위기 선제대응, △다각적인 일자리 지원체계로 탄탄한 고용안전망 형성, △상생애주기별·계층별 일자리 창출로 고용사각지대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에 오는 31일까지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찬준 위원장은 "지역소멸 위기, 청년인구 유출, 경기침체 장기화 등 당면한 어려움이 많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좋은 일자리 정책과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김제시에 꼭 필요한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매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지난 20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일자리정책 위원회를 개최했다.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

해당 상임위원회 통과... 26일 제2차 본회의서 의결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성증기)가 21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특히,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서남용 의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 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인사청문 대상을 명시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있다.

이에 따라 청문 대상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

단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이 해당 된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하며, 이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게 된다.

운영위원회 성증기 위원장은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요청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인사청문회의 순기능이 발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유해야생동물 포획기동단 안전교육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유해야생동물 포획기동단 안전교육을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 포획기동단은 수렵면허 5년 이상 유경험자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민의 농작물 피해 방지 및 아프리카페

지리멸방(ASF) 확산 방지를 위해 활동한다.

이번 교육은 2024년 포획기동단으로 선발된 35명이 참석했으며 김제경찰서의 총기 취급 및 사고 예방 교육도 병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가와 축사에서 100m 이내에서는 총기 사용 금지, 포획 구역 준수, 포획물 관리 방법, 포획된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방법 등 총기 사용 예방과 포획수칙에 대해 교육이 실시 되었으며, 여러 총기 사고 사례들이 안내돼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통합관제센터에서 365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10주년 완주 통합관제센터 안전지킴이 역할 '톡톡'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강력범죄·교통사고·재난 신속 대응

10년 차를 맞은 완주군 통합관제센터가 주민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014년 도내 군 최초로 개소했다.

현재 관제요원 12명이 533개소 1,128대의 CCTV를 4조 3교대로 365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해만 강력범죄, 교통사고, 재난 및 화재 대응 등에 576건의 영상정보를 제공했으며, 관제요원 모니터링에 의한 경찰 출동 80건, 차량 도난이나 자살 의심 등에 따른 수배차량 알리미 등록은 154건에 달한다.

지난해 6월에는 관제요원이 CCTV 분석으로 실종 치매노인을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에 완주경찰서는 공로를 높이 평가해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화재나 폭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신속하게 경찰에게 연락을 취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을 일천 차단한 사례도 있었다.

완주군은 통합관제센터 역할을 계속 해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법 CCTV 설치 사업을 규정 100대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 주민참여예산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 범죄취약 지역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24개소에 8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삼봉지구 2단계, 미니복합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CCTV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효율적인 관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봄꽃 향기로 가득한 도심 조성

팬지·비올라 등 10만본 심어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봄을 맞아 시청 회전교차로 등 주요 화단에 팬지, 비올라 등 10만본의 다채로운 봄꽃을 심으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봄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21일 까지 시청 회전교차로 및 주요 화단에 10만본의 다채로운 봄꽃 식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른 봄부터 아름다운 도심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백화동 시 양묘장에서 봄꽃 식재를 준비해 왔으며, 매년 꽃 생산량을 늘리

고 새로운 꽃종을 도입, 시민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또, 올해 45여만본의 계절에 적합한 꽃생산 및 공급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를 연출할 계획이며, 아스타, 은사초 등 새로운 꽃을 파종해 색다른 도시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1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도심권 대형화분과 가로등 곁에 화분에 계절초화를 식재하고, 벽돌제 진입부 교량 난간에 웨이브패치니아 등 꽃주머니 설치해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